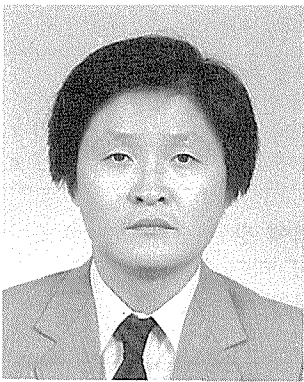


# 신경제추진과 정유산업



柳秀桓

<경인에너지 업무팀 과장>

새로운 문민 정부가 출범한 지 엇그제 같은데 꽤나 시일이 흘러간 느낌이 든다. 이는 신정부의 개혁 정책에 따른 변화의 속도가 빠른 탓인가보다. 지난 15년간 국가에너지정책을 주관해온 동력자원부가 새로이 상공자원부로 공식 출범한 지도 3개월 남짓 되어 정유업계의 일원으로서 다소의 혼란스러움과

우려감도 서서히 안정감을 되찾게 된 것 같다.

국가 에너지 정책 수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책 주관부처의 통합 개편에서 국내외적인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다소 상대적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감도 생긴다. 국내 에너지 자원의 부존도 취약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특히 석유자원이 전무한 우리로서는 국내 석유류 수급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몇차례 석유위기와 최근의 걸프전 등을 슬기롭게 대처해온 에너지정책 당국의 그간의 노고를 새삼 느끼게 된다.

최근의 국제 석유시장은 걸프전 이후 가격과 수급 면에서 대체로 안정된 국면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항상 돌발적인 정치적·경제적 요인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제시황은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국제 석유정세를 낙관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히려 석유부존자원의 지역적 편중, UR등 개방화 추세 확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의 심화에 따른 환경세부과 논쟁 등 새로운 요인발생에 따라 세계 석유시장의 불안요인 상존으로 가변성은 더 커질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국제석유시장 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  
**정유업계의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는  
 국내 유가관리제도와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및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도 한다고 본다.

한편 국내석유산업의 현 여건을 살펴보면 대내외적인 변화의 양과 질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과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어려운 형편이고 보면 새로운 대응전략과 각오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간의 국내 석유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국내석유류의 저가 안정공급 위주정책은 국내산업구조 및 에너지 수요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일정한 구조내지 *Pattem*을 형성시켜 놓았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정신의 해이에 따른 석유수요급증 등 국민 경제적 부작용도 초래되는 등 정책 재검토의 필요에 따라 이제는 국내 석유정책도 수요관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 변화 추세에 따른 석유제품의 경질화, 고급화 및 환경보전 정책에 따른 제품 청정화 등을 위한 신규투자 추진이 정책의 쏠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석유수요구조의 변화에 부응한 투자소요 증가뿐만 아니라 석유산업 전반적인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의 추세도 국내 석유산업이 대처해야 될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유업계의 실상은 혹자가 지적했듯이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걸프전이후 누적된 손실의 보전지연에 따른 경영상 손실 및 자금부담의 악화, 규제완화 추세속에 유통시장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 급속한 국내석유수요 증가에 부응한 막대한 정제시설 신증설 투자에 따른 가동초기의 경영부담, 정부

의 과도한 이윤 규제의 지속에 따른 저조한 수익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영상 예외상황에 따른 현 정유업계의 취약한 경영구조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제품의 고급화(저유황/경질유화) 추세에 부응키 위한 시설투자의 적기 추진과 중장기적으로 석유산업의 자율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배양 등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이 당면한 과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업계의 당면현실에 대한 공동 이해의 場을 한층 넓히고 장·단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우선은 정유업계의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는 국내 유가관리제도와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및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국내유가관리제도상의 제반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할 개선 과제로 그간 업계의 정책 당국간의 이견이 상당 수준 접근하여 가고 있다고 보나, 그럼에도 국내 유가 조정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조정요인에 대한 물가정책, 타산업 영향 등 정책적 고려에 따른 미흡한 반영, 원가 및 수익의 현실화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물가 안정 기조 유지 정책에 따라 최근의 제도적개선 노력도 시행상 지연되는 등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정유업계의 손실보전도 향후 국제원유시황에 따라 불확실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석유사업기금의 운용도 유가 완충기능에의 우선배정 및 석유산업부문의 중점 지원 등 적극적이고 점진적인 용도 조정이 필요하다

“

## 중장기적인 국내석유산업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진에는 국내석유산업의 체질강화가 필수적임은 물론 업계와 정부, 소비자 모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제반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

고 본다.

한편 국내석유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상표표시제의 조기정착화, 과도한 유통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유통마진의 현실화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영악화의 누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인상요인이나 정유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이러한 선결 문제의 해소를 통해 현재의 국내 석유산업의 경영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석유시장은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키 위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기의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내석유산업의 조속한 경영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유가자유화를 포함한 국내석유산업 자율화의 여건 조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중장기적인 국내석유산업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진에는 국내석유산업의 체질강화가 필수적임은 물론 업계와 정부, 소비자 모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제반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업계는 스스로의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자율적인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과도 유통비용 절감, 국제 석유시황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진기법의 습득, 개발노력의 경주, 이윤창출과

Risk 분산을 위한 사업다각화 등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석유정책은 기업의 체질 강화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적인 플러스 효과를 창출한다는 인식하에 향후의 제반시설 투자재원에 대한 지원 확대, 석유수요관리위주의 정책 지속 추진, 산유국 및 선진 소비국 등과의 자원외교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도 그간의 에너지 과소비현상이 말해주듯이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는 물론 업계와 정부의 대국민 홍보 등의 설득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석유산업의 체질강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응과 공동 노력의 경주가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2000년대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석유산업의 건설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동력자원부가 상공자원부로 통합됨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정부의 경기 활성화 등 산업정책에 매몰되어 국내 석유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신경제 정책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기대한다. ♣